

# 마지막 사냥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들어가며 ... 01

1. 파푸아에 살아온 사람들

- 파푸아는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가 아닙니다 ... 02

2. 인도네시아가 된 파푸아와 파푸아의 '발전' 시대 - 세계를 먹이는 파푸아 ... 07

3. 포스코 인터내셔널 ... 12

가. FPIC 부재 ... 13

나.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침해 ... 19

다.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침해 ... 20

라. 환경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 24

4. 파푸아에 진출한 기타 한국 관련 기업들 ... 25

가. 코린도 ... 25

나. 무림페이퍼 ... 31

5.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인가

- 글로벌 투자자와 토착민 ... 34

**발행일** 2020년 8월

**글쓴이** 정신영

**펴낸이** 공익법센터 어필 / 환경운동연합

**디자인** 정재영

**도움을 주신 분들**

박해인 (촬영감독), Franky Samperante (Yayasan Pusaka), Azizah Hapsari (EJF Indonesia),

Father Anselmo Amo, Oktoviauns Waken (SKP KAME), Linus Omba, Edita Omba 를

비롯한 Selil 마을의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어필에서는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의 셀릴(Selili)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6시간, 다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9시간을 간 뒤, 다시 차를 타고 5시간, 폭폭 발이 꺼지는 늪지대를 1시간 넘게 걸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을 배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셔야 셀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숲으로 갔어요.”

셀릴 마을에서 만난 마마 에디타는 예전에는 숲에서 몇 주씩 머무르며 주식인 사고(sago)도 수확하고, 사냥도 하고, 낚시도 하면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팜유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테이션과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숲은 사라졌고, 강도 더러워져서 더 이상 먹거리를 숲과 강에서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마 에디타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기능적으로만 필요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숲은 조상들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역사책이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미래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라는 신화(myth)를 믿는 근대인들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근대인들은 힘을 앞세워 숲과 땅을 파헤치고, 숲과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거침 없이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적인 식량, 금융위기로 촉발된 수출용 식량 및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한 투자 열풍으로 세계 곳곳의 토착민들(indigenous peoples)의 숲과 땅이 해외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토지 강탈(land grabbing)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숲과 땅에 의존하여 살아온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파푸아 섬에도 2010년 이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투자가 시작되었고 한국기업들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마 에디타와 같은 토착민들의 숲과 땅은 팜유나 사탕수수, 산업용 목재 등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플랜테이션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토착민들은 숲과 땅 그리고 역사와 미래를 빼앗겼습니다.

**▶▶ 숲은 우리의 집이고, 땅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세계 숲과 땅은 생명이고 영원입니다.**

마마 에디타와 마을 사람들의 삶은 조상들로부터 물려 받은 땅과 숲을 바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마마 에디타와 같은 토착민들의 마지막 남은 땅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생명과 영원을 물려주기 위하여, 땅과 숲을 지키는 이들의 싸움에 이 보고서가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파푸아에 살아온 사람들

- 파푸아는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 파푸아 섬에는 오랫동안 다양한 부족들이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파푸아 섬은 험준한 산악지대와 비옥한 계곡이 주를 이루는 고지대와 열대의 늪과 초원이 주를 이루는 저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푸아 섬에는 길게는 5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태평양의 슬로몬제도, 피지 등과 함께 멜라네시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sup>2</sup> 파푸아 섬의 정확한 부족의 수는 파악이 되지 않으나 대략 1,000개 이상의 부족이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sup>3</sup>

그러나 1883년 네덜란드가 파푸아 섬 한가운데 선을 긋고 섬의 서부에 대한 식민지배를 시작하였고, 동부 지역은 다시 영국과 독일이 나누어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대전 종전 후, 1975년에 파푸아 섬의 동부 지역은 호주의 통치를 거쳐 파푸아 뉴기니라는 독립 국가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한편, 섬의 서부 지역을 지배하던 네덜란드는 지역적, 인종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들과는 달랐던 파푸아가 분리된 국가로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1년에는 서파푸아의 의회가 구성되고 새로운 국기(모닝스타)가 게양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식민지 지배를 하던 모든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며 독립국가의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의 항방을 두고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갈등이 고조되자 미국이 개입하여 1962년 뉴욕에서 파푸아 섬 서부의 독립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Act of Free Choice)를 시행할 것에 대한 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New York Agreement). 이후 협정에 따라 유엔임시위원회(United Nations Temporary Executive Authority, UNTEA)가 잠시 행정 대행을 맡았던 것을 1963년 5월 1일부터 찬반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통치를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통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도 조직화되기 시작하는데 1965년에는 서파푸아에 독립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파푸아운동 (Free Papua Movement, Organisasi Papua Merdeka, OPM)이 창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969년 찬반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파푸아의 자주 독립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을 하였고, 여러 차례 군대가 개입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sup>4</sup>



멜라네시아 지도 © wikimedia commons/Hobe



1884년의 파푸아 섬의 지도. 섬의 서부지역은 네덜란드령이고 북동부는 독일, 남동부는 영국령 ©wikimedia commons/Av Okänd

뉴욕협정에 따르면 파푸아 서부지역이 독립국으로 남을지 인도네시아에 병합이 될지에 대한 찬반투표에 파푸아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나,<sup>5</sup>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민 대표 1,026명만을 선발하여 투표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선발된 주민들은 투표 몇 주 전부터 인도네시아 군대가 감시하는 합숙소에 머무르며 투표 날 해야하는 말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1969년 7월과 8월에 걸쳐 진행된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인도네시아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후 파푸아 사람들은 국제 상으로는 인도네시아인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국가에 포함이 되었지만 사회의 지배적인 구성원들과 구별된,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토착민 (indigenous peoples)이라고 합니다. 토착민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신대륙'을 정복하기 위해 토착민들을 수탈하고 말살해왔던 역사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지배국과 자원을 확보하려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의 전세계 식량 및 금융 위기 이후 수출용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토지 강탈 (land grabbing)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세계 토착민들의 땅과 자원이 강탈되고 있으며 고유의 문화도 말살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sup>6</sup>

1. 무주지(無主地) 또는 라틴어로 테라 놀리우스(Terra nullius, 라틴어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이라는 로마법 말)는 국제 공법에서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은 영토 또는 이전에 주권을 행사했던 어떤 국가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주권을 포기한 영토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18세기 영국의 선장인 제임스 쿡이 토착민들이 살고 있던 호주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정복을 하였다.

2. Bill Palmer, "Language families of the New Guinea Area" in *The Languages and Linguistics of the New Guinea Area: A Comprehensive Guide*, ed. Bill Palmer (Berlin: De Gruyter Mouton, 2018), 5.

3. "Papuan Tribes," Survival International, <https://www.survivalinternational.org/tribes/papuan>; "Papua New Guinea country profile," BBC News, last modified July 10, 2019, <https://www.bbc.com/news/world-asia-pacific-15436981>

4. 투표 전까지 인도네시아 군대는 파푸아 토착민들의 저항을 말살하고 보안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Operasi Sadar (1965), Operasi Brathayudha (1967), Operasi Wibawa (1969)와 같이 총 3번의 군사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Neles Tebey, *West Papua: The Struggle for Peace with Justice* (London: Cathol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2005), 5-6. 책의 저자인 Neles Tebey는 가톨릭 신부로서 서파푸아와 인도네시아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577918.html>

5. 당시 서파푸아 지역의 인구는 800,00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bid., 4-7.

6. Jérémie Gilbert, *Land Grabbing, Investments &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Land And Natural Resources: Case Studies And Legal Analysis* (Copenhagen: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2017), 11.

### 토착민은 누구인가?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은 특정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민족 집단입니다. 이들은 보통 해당 지역과 관련된 전통이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토착민들은 넓은 영토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약 3억7천만 명의 토착민들이 5000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의 인구 규모는 전세계 인구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전세계에 남아 있는 자원의 상당량이 이들의 영역(territory)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sup>7</sup>

### 유엔 토착민의 권리 선언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되고 난 후, 식민지가 붕괴되며 모든 민족의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이 존중 받는 듯하였으나 토착민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토착민들은 근대화를 통해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토착민과 부족에 관한 협약 169호(Convention No. 169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가 발효되면서 비로소 토착민들의 권리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유엔 총회에서 토착민권리선언이 채택이 되며 국제인권법 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토착민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sup>8</sup>

선언은 서문 23개조와 본문 4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 33-34조에서는 토착민들의 자기결정권; 9-15, 16, 25, 31조에서는 관습, 언어, 교육, 언론과 종교를 통한 문화 보호에 대한 토착민들의 권리; 17-21, 35-37조에서는 독립적 통치 및 경제 개발에 대한 토착민들의 권리; 23-24조에서는 보전에 대한 권리; 22조에서는 고령층, 여성, 아동 등 하위 집단에 대한 보호; 10, 26-30조에서는 배상 및 반환을 비롯한 소유권, 환경 문제 등에 관련된 토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토착민들이 문화와 전통을 유지 및 강화하고, 자주적 필요와 열망에 의한 개발이 촉진될 뿐 아니라, 이들이 차별 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개발에 참여할 것을 선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감을 찾아 다니는 Auyu 부족 토착민들 © Albertus Vembrianto for The Gecko Project/ Mongabay

7. Cathal Doyle, "Indigenous peoples' rights: Is HRIA an enabler fo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n *Handbook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ed. Nora Gotzman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135.

8. Ibid., 135-136.



토착민의 땅과 토착민의 숲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는 포스터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 2. 인도네시아가 된 파푸아와 파푸아의 '발전' 시대

- 세계를 먹이는 파푸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푸아를 군사 작전 지역(Daerah Operasi Militer/DOM)으로 지정을 하고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던 OPM(자유파푸아운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수하르토의 재임기간 동안 파푸아에서는 과격한 분리독립운동을 억압한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잔혹한 군사작전 수행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sup>9</sup> 사법의 살인, 자의적 체포, 고문, 집회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 등 '분리독립'에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토착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sup>10</sup>

군대는 또한 파푸아의 풍부한 자원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다국적기업과 결탁하여 토착민들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군대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군대는 파푸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사업을 지켜주는 보안요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환경파괴와 생존권 침해에 대항하는 주민들을 적극 탄압하였습니다.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사업에 반대하는 토착민들에 대해 '분리독립'세력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뒤로는 압박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개발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OPM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예요.<sup>11</sup>  
- Anselmus Amo, SKP-KAMe



천주교 기반 토착민 권리 옹호 단체인 SKP-KAMe의 Anselmus Amo 목사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2017년 12월 11일, 사업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토착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악명 높은 금광 기업인 프리포트 (Freeport)가 사업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토착민들 © M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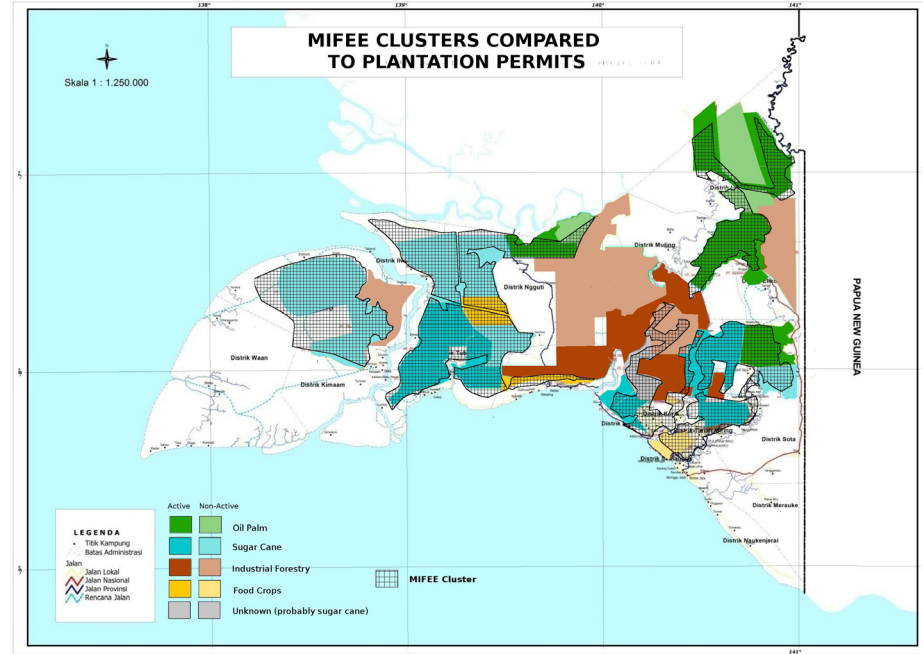
2017년 6월 Keerom의 Arso 부족이 광유 기업인 PTPN II(아사렐)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 © KPKC GKI Tanah Papua

파푸아의 토착민들은 군대의 적극적인 인권침해 외에도 중앙 정부의 대대적인 이주정책으로 인하여 고유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말살되는 민족학살(ethnocide)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하르토 정부는 자바섬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한편 인구 희소 지역인 섬들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자바인들을 다른 섬에 노동자들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sup>12</sup> 이렇게 이주를 한 트랜스미그라시(transmigrasi)의 인구는 2011년, 파푸아 토착민들의 인구를 초월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미그라시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주도권을 갖게 되고, 생활양식 또한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파푸아 토착민들의 고유의 문화와 삶의 양식은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이 되며 주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푸아 토착민들은 자기 땅에서 차별의 대상으로 소외가 되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왔습니다. 1998년, 32년간 철권통치를 하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하야하자 중앙정부는 지역을 존중하는 정책들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파푸아를 비롯하여 아체(Arche) 등 독립을 주장하던 지역들에 대해 온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파푸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2000년도에는 파푸아 전역에서 파푸아의 상징인 모닝스타 깃발을 걸고 수백명의 부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개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2001년에는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살해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1년 파푸아를 '특별자치주'로 만드는 법 'Papua Special Autonomy Law 21/2001 (PSAL/ Otsus)'을 제정하였습니다. PSAL은 토착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소하고 토착민들의 자치권과 관습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이행 과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이 지방 정부에서 마련되지 않아 토착민들의 땅과 숲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PSAL 제정 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평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sup>13</sup>

2010년부터는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타개하고 파푸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푸아 동남부의 메라우케 지역을 대규모 농업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MIFEE (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메라우케 식량 및 에너지 복합생산 농업지구) 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메라우케 지역에는 69개의 기업이 진출을 하여 쌀, 곡물, 사탕수수, 산업 목재, 팜유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430,000 ha 이상의 지역이 대규모 농업 및 산업을 위한 토지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sup>14</sup>



대부분의 지역이 팜유(녹색)와 사탕수수(파란색) 플랜테이션을 위한 것으로 허가가 난 MIFEE 지역(노란색)의 2013년도 지도 © awasMIFEE

9. 한 예로 아시아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잊혀진 학살(The Neglected Genocide)"은 1977년에서 1978년 사이에 중앙 고산지역의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군사작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은 당시 분리독립운동이 활발했던 고산지역의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폭격기를 동원하여 폭탄을 투하하고 총살을 하였다. 폭탄 뿐 아니라 화학무기가 투하되었다는 증언도 있으며, 지상군은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로 사격하고 집을 불태우고는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학살하였다. 피해규모는 최소 5,000명에서 몇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TAPOL and John Stewart Sloan, ed., *The Neglected Genocide* (Hong Kong SAR: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3) 참조.

10. "Indonesia: Civil and Political Rights' Violations in Papua and West Papua: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for Indonesia CCPR session 129, June-July 2020," Amnesty International, May 31, 2020,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1/2445/2020/en/>.

11. "The Consultant: Why did a palm oil conglomerate pay \$22m to an unnamed 'expert' in Papua?," The Gecko Project, June 26, 2020, <https://thegeckoproject.org/the-consultant-why-did-a-palm-oil-conglomerate-pay-22m-to-an-unnamed-expert-in-papua-edb486651342>.

12. 이러한 이주정책을 transmigrasi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정착한 자바인 이주민들은 transmigrasi(트랜스미그라시)라고 불린다. transmigrasi 정책은 네덜란드가 수마트라섬의 플랜테이션에 자바섬의 가난한 사람들을 노동자로 이주시키면서 시작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정책을 이어 받아 세계은행 등 개발원조기구의 지원을 받아 자개발 지역을 개발시킨다는 명목으로, 2만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를 문화적으로 동질적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활발하게 이주정책을 실행하였다. 트랜스미그라시들은 파푸아 외에도 수마트라, 칼리만탄 등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토착민들과의 사회 경제적 갈등과 문화 충돌로 인한 마찰을 야기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01년 칼리만탄에서 다약(Dayak) 토착민들이 트랜스미그라시들을 대대적으로 참수하여 위협을 받게 된5만명에 이르는 트랜스미그라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실패사례가 있다.

13. Forest Peoples Programme, Pusaka and Sawit Watch, "A Sweetness like unto death" (2013), 15-16; Savitri, Laksmi Adriani, and Susanna Price. "Beyond Special Autonomy and Customary Land Rights Recognition: Examining Land Negotiations and the Production of Vulnerabilities in Papua." In *Land and Development in Indonesia: Searching for the People's Sovereignty*, edited by John F. McCarthy and Kathryn Robinson, (ISEAS-Yusof Ishak Institute, 2016), 343-350.

14. Research by PUSAKA, EJF Indonesia



### 3. 포스코 인터내셔널

MIFEE 프로젝트를 통하여 메라우케 지역에 진출한 기업 중 한국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식량/바이오 시장에서 유망품목인 팜오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1년 메라우케 지역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을 위해 설립된 PT. Bio Inti Agrindo (PT. BIA)의 지분 85%를 획득하였습니다. 2012년 9월부터 팜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수확한 팜 열매를 가공하기 위한 CPO (Crude Palm Oil) 공장이 착공되었습니다. 2017년 제1 공장이 완공되어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2019년 12월 두번째 CPO 공장이 완공하여 2020년 4월 기준으로 월 8,000톤의 CPO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팜유는 주로 인도네시아 내수 및 동/서남아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이후 2025년까지 연간 17만 톤의 CPO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sup>15</sup>

PT. BIA는 팜유 플랜테이션 조성을 위하여 27,000헥타르에 이르는 숲을 파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이 손실되고 온실가스 흡수원의 감소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PT. BIA의 사업으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숲에 의존하여 살아 왔던 파푸아 토착민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PT. BIA A구역에 위치한 CPO 가공 공장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 가. FPIC 부재

PT. BIA의 플랜테이션이 위치한 숲은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토착민들은 부족간의 경계를 존중하며 각 부족의 관습적 권리가 인정되는 숲에서 사냥을 하거나 사고(Sago)를 채취하여 먹거리를 구하였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초를 구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토착민들은 선조들이 세례를 받거나 전쟁을 치른 곳 등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장소를 보존하고 기리며 역사를 계승해왔습니다. 이들에게 숲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혼이 깃들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올바족의 선조가 처음 세례를 받은 곳으로 신성한 곳으로 보존되어 있는 Doeval 마을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따라서 토착민들이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숲이나 땅 등 영역(territory)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토착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인권규범에서는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프로젝트와 토착민들의 활동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참여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보장
-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이하 FPIC)’를 얻을 수 있도록 토착민들과의 협의
- 이윤의 공정한 분배
- 프로젝트의 영향과 연관된 예방, 경감, 구제 조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적인 모니터링의 보장<sup>16</sup>

15. PT. BIA, "2016 PT. BIA Environmental and Social Report" (2017), 4; POSCO INTERNATIONAL, "POSCO International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9" (2020), 51; 농업 자원에 관한 포스코인터내셔널 홈페이지<http://www.poscointl.com/eng/foodResource.do> 참고  
 16. Cathal Doyle, "Indigenous peoples' rights: Is HRIA an enabler fo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n *Handbook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ed. Nora Gotzman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136.

### 토착민권리선언에 나타난 FPIC<sup>17</sup>

‘토착민 권리에 대한 선언’은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시행되기 전에 자유롭고, 사전에 취득되었으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19조) 국가는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은 인권준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FPIC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법률 혹은 행정 규칙의 제정 (제19조)
- 토착민들의 토지 및 구역과 자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끼칠 각종 사업, 특히 채굴 및 자원을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사업계획의 착수 (제 32조)
- 기존 토지나 구역을 벗어난 토착민들의 재이전 (제10조)
- 토착민들의 토지나 구역 안에 위험물질의 보관 혹은 폐기 (제 29조)

또한, 토착민들 중 원치 않게 토지의 소유권을 잃은 자들 중, FPIC가 없이 토지가 압수되거나 박탈, 점령과 훼손되었다면 토착민들은 보상 혹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28조)



토착민들이 강과 산 뿐 아니라 부족에게 신성한 지역 (HCV), 부족간의 경계를 표시하여 직접 만든 지도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 토지 분쟁(land conflicts) 야기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FPIC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A구역에 대한 토지 분쟁(land conflicts) 문제가 있는데, A구역의 숲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만도보족(Mandobo Tribe)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마린족(Marind Tribe)으로 부터 토지사용권을 양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PT. BIA는 마린족 출신의 2명에게 1 ha 당 단돈 50,000 IDR (약 5.53USD)를 지급하고 A구역의 사용권(HGU)을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도보족은 A구역의 숲이 개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도보족은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회사에서는 A구역에 대한 보상이 문제 없이 끝났으며 만도보족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PT. BIA의 사업 과정에서 ‘선주민(토착민)과 지역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전동의원칙(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을 준수한다’는 행동준칙을 채택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T. BIA는 공청회를 통해 토착민들에게 고지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달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청회 (socialisasi)는 FPIC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토착민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이 아닌, 회사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18</sup>

### 선주민사전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이행

PT.BIA법인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선주민이 의도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업 개발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선주민들과 오랜 기간 동안 충실 히 교류해 왔으며, 선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보상, 일자리 교육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007년에 진행된 첫 공청회부터 부지 개발을 시작한 2011년까지 총 10회의 공청회를 통해 선주민과 소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NGO,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 하여 사업의 내용과 영향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CPO Mill 2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착수 전부터 지역주민과 건설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 시행 계획 사전 인지에 대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대표의 확인과 사업 시행 지지서를 받는 등 CPO Mill 2기에 대한 선주민사전동의 절차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실린 선주민사전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이행 보고내용

17. United Nation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Indigenous Peoples" (2013. 9), 1.  
 18. 다수의 보고서 및 인도네시아 현지 활동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socialisasi 라는 용어는 주로 개발자(회사)들이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FPIC를 이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Glossary to Conflict or Consent? The oil palm sector at a crossroads, ed. Marcus Colchester and Sophie Chao (FPP, Sawit Watch and TUK INDONESIA, 2013), 403.

**FPIC 원칙과 PT. BIA의 이행 현황 비교**

**FPIC 원칙**

**FREE**

'자유'가 시사하는 바는, 강요 및 위협과 조작의 부재를 뜻합니다.

**PT. BIA의 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청회에는 군인들이 참석하여 회사가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2015년도 PT. BIA와의 공청회에 총을 들고 참석한 군인의 모습

**PRIOR**

'사전에 취득'이 시사하는 바는, 그 어떤 조치의 착수나 승인에 앞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으며, 상의 및 합의 과정에 있어 토착민들의 시간적 필요여건에 대한 존중을 보였음을 뜻합니다.

PT. BIA Block A 구역 바로 아래에 위치한 셀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위의 숲이 사라지고 플랜테이션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플랜테이션이 생긴다는 것을 몰랐어요. 숲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Edita Omba (셀릴 마을 주민)



토착민들의 숲(좌측)과 PT. BIA의 팜유 플랜테이션(우측)을 사이로 둔 길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INFORMED CONSENT**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이 시사하는 바는, 토착민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을 다루며, 제안된 사업계획 혹은 조치의 본질과 규모, 시행속도와 원상복구 가능성,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된 사업의 목적과 함께 총 시행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인근 지역과 영향을 받는 구역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평가 보고서도 제공되며;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며; 계획된 사업에 따라 행해질 절차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선택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의 과정에 있어, 토착민과의 상의 및 참여는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플랜테이션의 영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가 오기 전후의 변화는 직접 겪은 것이죠. 예를 들면 전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물을 끓일 필요도 없이 비안 강에서 가서 강물도 직접 마실 수 있었고 씻거나 빨래를 하는 것도 모두 강물에서 직접 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온 후로 그럴 수 없어요. 화학물질 때문이에요. 회사가 온 후 무슨 일이 있을 지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 Bibianos Bayub (셀릴 마을 주민)



Bibianos Bayub (셀릴 마을 주민)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토착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파괴된 Yawontop 고보존 구역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 고보존구역 파괴

PT. BIA 사업 과정에서 FPIC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최근에 발생한 Yawontop HCV(HCV Area, High Conservation Value Area, 고보존지역) 파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선조들이 큰 전투를 벌인 후 많은 시신들이 묻힌 곳으로 토착민들에게 신성한 곳(sacred place)으로 여겨져왔으며, 토착민들은 이곳에서 전통의식을 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토착민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파괴가 되었으며 토착민들은 이로 인하여 안정감, 문화적 정체성의 원천을 상실하고, 관습적 공동체에 재앙이 닥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보존지역의 파괴는 PT. BIA가 인증을 받은 ISPO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RSPO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sup>19</sup>

## 나. 물에 대한 권리(right to water) 침해

물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장전 상의 생명권 및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자 사회권규약 상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입니다. 물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물에 대한 정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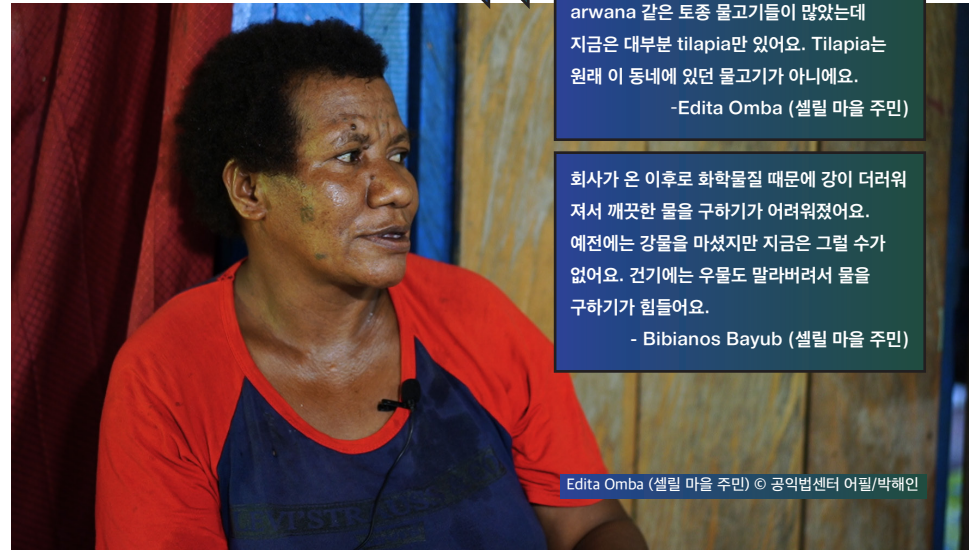
드넓은 숲이 사라지고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PT. BIA에 인접한 강으로 비안강이 있는데, 토착민들은 비안강과 그 지류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플랜테이션이 들어선 이후 비안강의 수질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지류들도 오염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어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빗물을 모아서 쓰거나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질에 대한 보장도 되지 않아 불안감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격한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나, 대규모 플랜테이션의 운영이 인근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농업에서 사용되는 비료와 살충제,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sup>21</sup> 그러므로 27,741 ha, 즉 83,916,525평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의 땅에 투여되는 막대한 양의 화학물질이 주변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PT. BIA 사업장에는 CPO(crude palm oil, 팜원유)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공장 폐수의 수질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하천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Sembilan fish, snapper, arwana 같은 토종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tilapia만 있어요. Tilapia는 원래 이 동네에 있던 물고기가 아니에요.  
-Edita Omba (셀릴 마을 주민)

회사가 온 이후로 화학물질 때문에 강이 더러워져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강물을 마셨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건기에는 우물도 말라버려서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 Bibianos Bayub (셀릴 마을 주민)



Edita Omba (셀릴 마을 주민)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19. "PT. BIA Tidak Menghormati Hak Masyarakat Adat," PUSAKA, February 12, 2020, <https://pusaka.or.id/2020/02/pt-bia-menggusur-hutan-keramat-yawontop/>  
20. "General Comment No. 15 (2002) The right to water (arts. 11 and 1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2/11, para 12.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업활동에 따른 수질오염 - FAO에서 발행한 Water pollution from agriculture: a global review 요약 보고서" (2017)



집 앞에 빗물을 모으기 위해 둔 드럼통. 드럼통에 모인 빗물을 씻거나 빨래를 할 때 사용함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우물을 파서 길어올린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 © 공익법센터 어필/박해인

## 다. 식량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침해

식량에 대한 권리는 국제인권장전과 사회권규약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의하여 보장 받는 권리입니다. 식량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식량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식량은 양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고, 문화적 전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식량에 대한 권리가 특히 대규모 토지 매입과정에서 위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을 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땅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보상 없이 땅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식량에 대한 권리가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sup>22</sup>

2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Olivier De Schutter, "Large-scale Land Acquisitions and Leases: A Set of Minimum Principle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Human Rights Challenge," UN Doc. A/HRC/33/13/Add2., para 4.

23. "Papuan tribes fear sacrifice of sago forests that stave off hunger," Thomson Reuters Foundation, August 20,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onesia-forests-palmoil-indigenous/papuan-tribes-fear-sacrifice-of-sagoforests-that-stave-off-hunger-idUSKCN25G067>; "In the plantations there is hunger and loneliness: The cultural dimensions of food insecurity in Papua," The Gecko Project, July 14, 2020, <https://thegeckoproject.org/in-the-plantations-there-is-hunger-and-loneliness-87eb16f5b0f3>

## 주식(主食)의 상실

파푸아 토착민들은 사고야자 나무의 줄기 안에서 추출한 녹말가루를 요리한 음식을 주식으로 삼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사고나무에서 수확을 한번 하면 한 가족이 세달을 먹을 수 있었지만 숲이 사라지자 수확이 가능한 사고야자 나무도 사라져서 예전과 같이 사고를 수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토착민들은 쌀을 주식으로 삼을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1kg에 13,000루피아의 쌀 값을 감당하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토착민들이 주식으로 삼아온 사고를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식량을 잃는 것이 아닌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당하는 것입니다.<sup>23</sup>



파푸아 토착민들의 주식인 사고야자 나무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사고야자를 채취하여 걸러 만든 가루를 구워 만든 빵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 생계 유지의 어려움

주식인 사고 외에 다른 식량들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숲이 파괴되고 강이 오염되어 예전과 같이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것으로는 동물이나 물고기가 충분히 잡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하여 토착민 중 일부는 PT. BIA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착민들은 대부분 정식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이 되고 있으며, 고용 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농장의 일부를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 플랜테이션으로 운영하는 농장인데, 당초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경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PT. BIA에서도 지역 토착민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토착민들에게 플라즈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셀릴마를 주민인 Bibianos Bayub은 2017년도에 회사가 공청회를 열어 플라즈마를 해아하니 새로운 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회사는 플라즈마를 운영하며 특정 부족에게 플라즈마 수당으로 인금을 해주고 있는데, 금액이 3달에 300,000 루피아 (약 24,000원) 내지는 500,000 루피아 (약 41,000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어렵습니다. 더욱이 플라즈마에 고용된 사람들은 PT. BIA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PT. BIA의 플라즈마에서 일하기 위해 매일 왕복 8km를 걸어야하네요. 전에는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맨손으로 뿌리는 일을 했는데 몸이 안좋아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팜열매를 줌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4,000kg을 모아야 1,000,000 루피아 (약 82,000원)를 받을 수 있어요. 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 Morikarpa

Morikarpa (PT. BIA 플라즈마 노동자, 킨디키 마을 주민)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PT. BIA의 플라즈마에서 수확한 열매는 PT. BIA에만 팔도록 되어 있어서 큰 이익이 나지 않아요. 플라즈마에는 아무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도 없고 일할 때 필요한 장비도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아서 급여가 더 줄었어요.”

- Maximus Gepse

Maximus Gepse (PT. BIA 플라즈마 노동자)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토착민들이 플랜테이션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면 회사는 처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처리가 돼요.”

- Romanus (PT. BIA 노동자)

Romanus Ugenetan (PT. BIA 노동자)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 라. 환경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

기업이 대규모 자원 채굴 및 농업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지역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 위협, 괴롭힘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매주 적어도 3명의 환경인권옹호자(Environmental Human Rights Defenders)들이 광업 및 농업과 연관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신의 땅과 자원을 지키려던 중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폭력은 만연합니다. 이러한 토지와 환경에 대한 옹호자 중 4분의 1이 토착민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sup>24</sup>

이렇게 토지와 환경을 지키려는 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은 파푸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군대의 위협은 이들의 활동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PT. BIA 에 의해 숲을 빼앗긴 만도보족의 리더인 Linus Omba는 2012년 경부터 활발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Linus는 부족 사람들과 함께 회사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6. 8. 5.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동원된 특수부대 군인들이 총을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푸아 섬에서 팜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자회사 PT. BIA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숲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토착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PT. BIA는 토착민권리 선언에 따라 보장되어 있는 FPIC를 이행하지 않아 토착민들 사이에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파괴하는 등 사업과정에서 계속해서 토착민들의 FPIC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근 강의 수질악화로 인하여 강물을 생활용수로 쓸 뿐 아니라 마실 수도 있던 지역 주민들은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토착민들은 기존에 사냥과 채집을 하던 숲이 사라지고 낚시를 하던 강이 오염되어 주식인 사고를 포함하여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도 어려워 식량에 대한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PT. BIA의 팜유 생산을 위한 플랜테이션은 토착민들의 기존의 삶의 양식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기반마저 빼앗아버려 토착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① 2016. 8. 4. 토착민들이 토지분쟁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며 PT. BIA A구역 초소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모습 ©PUSAKA

② 2016. 8. 5.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를 하는 토착민들을 진압하러 온 경찰과 특수부대 군인들 ©PUSA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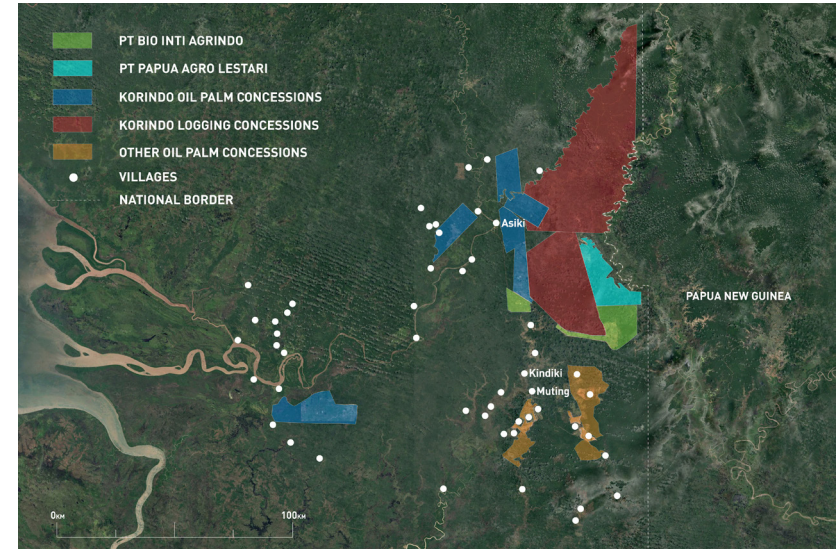
③ 2016. 8. 5.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동원된 특수부대가 발포한 총탄 ©PUSAKA



## 4. 파푸아에 진출한 기타 한국 관련 기업들

### 가. 코린도

파푸아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지 주민들이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코린도(Korindo)그룹이 있습니다. 코린도는 한인 출신의 CEO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으로<sup>25</sup> 총 60개 이상의 자회사를 통해 팜유, 합판, 목재 생산 및 금융 및 해운물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린도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남부 지역 사업장 지도 ©The Gecko Project

24. Global witness, "Responsible Sourcing: The business case for protecting land and environmental defenders and indigenous communities' rights to land and resources," April 28, 2020, 2.

25. 코린도 그룹의 승은호 회장은 '국내거주자'로 판명이 된 바가 있다. 승은호 회장은 두 아들과 함께 2014년 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역외탈세한 것으로 고발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2018년 법원 판결에서 승은호 회장이 소득세법 상 '인도네시아 한상'이 아닌 '국내거주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승 회장이 본인 소유인 서초구 소재 빌라에 주민등록을 하고서 국내에서 배우자와 차남 승 모씨가 상시 거주하는 위 빌라에서 생활했다"며 "승 회장은 연평균 128일, 배우자는 연평균 260일을 국내에서 체류"한 사실을 들어 승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 대규모 산림파괴와 FPIC 미이행

코린도는 파푸아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의 팜유 플랜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두 배 가량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코린도는 2013년 이후 파푸아에서 25,000 ha 이상의 숲을 파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sup>26</sup> 이는 2019년 8월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이하 FSC)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FSC는 코린도가 HCV를 포함한 숲을 대규모로 파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FPIC를 이행하지 않아 이들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sup>27</sup>



보벤다굴 지역의 Getentiri 마을에 있는 코린도 사업장 사진 © Albertus Vembrianto for The Gecko Project/ Mongabay

## 의문의 거래

The Gecko Project는 2020년 6월, 코린도가 파푸아에서 플랜테이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 비용 (consultancy fee)'으로 지급된 약 2,200만 USD가 뇌물로 추정된다는 것에 대해 여러 정황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The Gecko Project는 코린도의 팜유 플랜테이션이 파푸아 현지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sup>28</sup>

##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 실패

The Gecko Project는 FSC에서 2019년 발행한 레포트를 인용하여 상세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코린도도 플랜테이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지 토착민들의 토지와 숲을 착취하여 3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토착민들을 위해서는 단 480만 달러만을 지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플랜테이션 농장에 고용된 인원 중 90% 가량은 다른 섬에서 온 이주민들이며, 파푸아 토착민 중 극소수의 사람만이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코린도의 플랜테이션에서의 이익이 현지 토착민들에게는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 생존에 대한 위협

더 나아가 The Gecko Project는 토착민들이 이익은 커녕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린도의 플랜테이션으로 인하여 토착민들은 숲에서 식량을 얻기가 어려워졌으나 플랜테이션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일을 한다고 하여도 저임금으로 식료품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The Gecko Project에서는 14살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코린도 사업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 하였는데, 급여의 반이 식대로 지출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협은 지역 아동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The Gecko Project에서는 무팅(Muting)지역의 보건소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수 백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강 검진 결과를 제공 받아 분석하였는데, 지역 아동의 절반 가량이 기아로 인한 발육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아동들의 발육 저하 상황이 심각한데, 이는 아이를 모유수유하는 엄마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조사 기간 동안 12명의 아동이 영양부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 "The Consultant: Why did a palm oil conglomerate pay \$22m to an unnamed 'expert' in Papua?," The Gecko Project, June 26, 2020, <https://thegeckoproject.org/the-consultant-why-did-a-palm-oil-conglomerate-pay-22m-to-an-unnamed-expert-in-papua-edb486651342>

27. 글로벌이코노미. "[글로벌-Biz 24] 국제환경단체 FSC, 한국 코린도의 인니 파푸아 지역 위반 폭로 수정 보고서 발표" (2019. 11. 12),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191112094226745094b5829de2\\_1&md=20191112140603\\_R](https://news.g-enews.com/view.php?ud=20191112094226745094b5829de2_1&md=20191112140603_R);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SC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https://fsc.org/en/unacceptable-activities/cases/korindo-group>

28. The Gecko Project는 열대우림 파괴 및 토지 강탈 (land grabbing)에 대한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입니다. The Gecko Project는 Mongabay, 101 East - Al Jazeera's Asia-Pacific current affairs program과 뉴스타파와 함께 2020년 6월, 파푸아 섬의 한국의 투자의 영향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으며 취재 내용은 The Gecko Project 외에도 Mongabay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Al Jazeera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Selling Out West Papua | 101 East"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린도는 2013년 플랜테이션 사업을 위해 PT. Papua Agro Lestari (PAL)라는 법인을 150만 USD에 매입을 한 뒤, '컨설턴트 비용 (consultancy fee)'라는 명목으로 2,140만 USD를 '김남구'라는 인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플랜테이션 허가권 획득과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전문가" 비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으며, 2015년에 같은 명목으로 50만USD가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 총 약 2,200만 USD가 '김남구'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플랜테이션 허가권을 얻기 위해 공식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컨설팅' 항목은 뇌물공여 시 지급 지출 항목으로 종종 활용된다는 점,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 과정에 만연한 뇌물공여, 부패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반부패 전문가들은 이 금액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Consultant: Why did a palm oil conglomerate pay \$22m to an unnamed 'expert' in Papua?," The Gecko Project, June 26, 2020, <https://thegeckoproject.org/the-consultant-why-did-a-palm-oil-conglomerate-pay-22m-to-an-unnamed-expert-in-papua-edb486651342> 참고.





Boven Digoel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아이와 함께 일하는 Maria Kies © Albertus Vembrianto for The Gecko Project/ Mongabay



막내 아이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Kindiki 마을의 Friska Basik-basik © Albertus Vembrianto for The Gecko Project/ Mongabay

## 군대의 위협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토착민들은 “지속적인 위협의 분위기 속에서 협박과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The Gecko Project에서 입수한 FSC 보고서는 파푸아 전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지역 주민들이 코린도의 활동이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코린도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The Gecko Project는 코린도가 지역의 군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비용 (security payments)’을 지급한 것을 KontraS라는 인도네시아의 NGO가 밝혔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 환경인권옹호자 탄압

실제로 코린도의 사업장에서는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환경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린도 사업장 중 하나인 PT. Berkat Cipta Abadi (PT. BCA)에서는 만도보족의 리더이자 환경인권옹호자인 Petrus Kinggo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etrus Kinggo는 코린도가 FPIC을 이행하지 않고 숲을 파괴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던 중, 2018년 8월, 본인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된 유인물이 PT. BCA의 경비초소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에는 인도네시아 군인과 신원 불상의 남자들이 Petrus Kinggo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왓츠앱(카카오톡과 같은 SNS)을 통해 Petrus Kinggo를 붉은 원으로 표시한 사진을 배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코린도의 사업장 중 하나인 PT. Tunas Sawa Erma (PT. TSE) 에 항의를 하러 갔던 토착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6일, Marius Betera는 본인 소유의 바나나 농장이 훼손 당한 것을 발견하고는 PT. TSE에 항의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PT. TSE측에서는 경찰에 연락을 취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Marius Betera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sup>29</sup> 이에 인도네시아와 국제 시민단체에서는 코린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및 사망사건에 대해 규탄하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업에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sup>30</sup>



PT. BCA의 경비초소에 붙어 있던 Petrus Kinggo의 사진/ PT. BCA의 경비원이 Kinggo의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PUSAKA  
2020. 6. 11. 인도네시아 경찰들의 WhatsApp 글 통해 공유된 Petrus Kinggo의 사진 © PUSAKA

29. "Pernyataan Sikap: Usut Tuntas Kekerasan di Perkebunan Kelapa Sawit PT. Tunas Sawa Erma, Distrik Jair, Kabupaten Boven Digoel, Papua," PUSAKA, May 16, 2020, <https://pusaka.or.id/2020/05/pernyataan-sikap-usut-tuntas-kekerasan-di-perkebunan-kelapa-sawit-pt-tunas-sawa-erma-distrik-jair-kabupaten-boven-digoel-papua/>

30. 공익법센터 어필, "[공개서한] 코린도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토착민들의 토지와 인권옹호자를 보호하라," (2020. 7. 3), <http://apil.or.kr/?p=13570>

## 나. 무림페이퍼

한국의 대표적인 제지 기업인 무림페이퍼는 조림부터 펄프 조달, 제지까지의 수직계열화를 위하여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조림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무림인터내셔널을 통해 현지법인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지분 50.6%를 인수하였으나, 2016년 무림인터내셔널이 무림P&P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무림P&P는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지분의 99.6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에서는 우드칩 생산을 위하여 64,505 ha 에 이르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칼립투스 숲과 사바나가 혼재된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2015년부터 4,400 ha에 이르는 자연림이 파괴가 되었습니다.<sup>31</sup>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많지는 않지만 토착민들의 숲을 플랜테이션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011년 5월에 보도된 지역 뉴스에 따르면 Sanggase 마을 주민들이 PT. Plasma Nutfa Malind Papua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sup>32</sup>

2020년 1월에는 14명의 토착 부족 리더들이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동안 토착민들에게 약속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부족 리더들은 보상금과 더불어 숲을 산업 목재 플랜테이션으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에 대한 수익 또한 토착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sup>33</sup>

2020. 2. Boepe 마을의 토착민들이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 사무실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 Jubi/ Frans L Kobun

31. "Korindo is not the only FSC-certified timber company that has cleared forest for palm oil," awas MIFEE, November 15, 2019, <https://awasmifee.potager.org/?p=1688>

32. "Local people reject PT Nutfa Malind-Papua in Okaba," West Papua Media, May 1, 2011, <https://westpapuamedia.info/2011/05/01/local-people-reject-pt-nutfa-malind-papua-in-okaba/>

33. "Residents visited PT Plasma Nutfah Marind-Papua demanding payment of honorariums," Jubi, January 27, 2020, <https://jubi.co.id/warga-datangi-pt-plasma-nutfah-marind-papua-tuntut-pembayaran-honor/>

이처럼 파푸아 섬에 투자한 한국 및 한상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투자가 토착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삶의 기반을 빼앗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랜테이션을 위한 사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FPIC를 존중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분쟁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토착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토착민들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에 대한 권리 침해와 식량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생존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토착민들은 일상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Gecko Project도 이러한 점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파푸아에 한국인들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 토착민들은 플랜테이션이 삶을 더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코린도는 토착민들의 토지를 얻기 위해 여러가지 약속을 했었고, 포기한 땅과 나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집과 교육도 보장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토착민들은 플랜테이션 지분과 도로와 병원, 전기도 공급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착민들은 코린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린도가 플랜테이션을 시작할 때 토착민들에게 토지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했던 토착민조차도 후회에 가득찬 말을 The Gecko Project에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을 한국인들이 잘 관리할 것이라 믿었어요... 투자는 넘쳐나지만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 수입과 권리와 환경을 한번 보세요.”**  
- Nikolaus Mahuze



## 5. 잘 살게 된 것은 누구인가

### - 글로벌 투자자와 토착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공적금융기관은 정책적으로 이러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농업·산림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및 용자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5억, 산림청에서 약 49억원의 용자를 지원받았습니다.<sup>34</sup> 또한 공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 법인인 PT. BIA에 총 115,125,000 달러를 제공하였으며, 국민연금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 5.3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sup>35</sup>

결국 파푸아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투자는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겠으나 파푸아 사람들, 토착민들에게는 애초에 약속된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삶의 기반으로 삼아왔던 땅과 숲, 자원을 빼앗기고, 식량 생산 수단을 상실하고,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자연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고유인 문화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실패는 비단 파푸아 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8년 전세계 금융 위기와 식량 위기로 촉발된 대규모 투자는 '개발되지 않은' 토착민들의 땅과 숲, 자원을 겨냥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집과 어머니를 파괴하는 개발은 이들을 물리적, 문화적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투자 사례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토지와 자원을 착취하는 '개발 프로젝트'로 인하여 토착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존을 위해 의존해오던 동식물의 감소
- 토착민들의 정체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 강, 호수의 파괴
- 기업에 대한 의존도 증가
- 수질 오염
-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질병 발생
- 전통적인 음식과 약의 상실
- 외부인의 증가로 인한 폭력, 성착취, 알콜 중독 증가
- 토착민들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sup>36</sup>

34. KBS News, "[영상] '환경파괴' 비판 받는 사업에 49억 지원 결정한 정부...왜?" (2019. 5.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91865&ref=A>

35. POSCO INTERNATIONAL, 2019 주주현황 <http://www.poscointl.com/kor/shareholder.do>

36. Cathal Doyle, "Indigenous peoples' rights: Is HRIA an enabler fo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in *Handbook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ed. Nora Gotzman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135.





숲에서 과일을 수확하는 토착민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셀릴 마을의 아이들 © 공익법센터어필/박해인

이러한 문제가 전세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유엔의 인권기구에서는 기업이 토착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주재국(host state)의 입장과 무관하게 토착민들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할 것;
- FPIC를 이행할 것;
- 사업활동이 사회적, 영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절차를 마련할 것;
- 이익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을 할 것.<sup>37</sup>

따라서 한국 기업과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은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해외 자원 개발'을 장려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류에게 남아 있는 자원의 많은 부분은 오랫동안 땅과 자원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이어온 토착민들의 영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온 토착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들의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한국 공적금융기관에게

-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할 때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실질적 인권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사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토착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조사를 하고, 토착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우에만 금융 지원을 할 것
-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책임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ESG 정책을 도입할 것
-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토착민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립적이고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FPIC를 이행하며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것

#### 한국 기업에게

-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을 하는 경우, 사업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토착민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조사를 하고 토착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가 보장되는 평가 절차를 마련할 것
-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FPIC를 이행하고, 물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사업을 진행할 것
- 토착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할 것
- 토착민들의 땅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토착민들에게 공정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할 것

37. Ibid., 141.





**APIL** 음악법센터  
어필

**화경운동연합**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by APIL